

# 서울 성수동 사로잡은 '진도 곱창김'... 3일간 6천 명 몰려

##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 성황... 외국인 공략 성공

서울 성수동을 뜨겁게 달군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가 약 6,000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의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따라 추진 중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도 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젊은 소비층과 케이-김(K-김)의 열풍으로 한국 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체험과 참여 중심의 공간을 구성해 전시 위주의 홍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하루 평균 약 2,000명이 방문하는 등 현장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진도 곱창김에 대한 현

장 반응 역시 뜨거웠다.

'테토김, 에겐밤'을 주제로 운영된 이번 행사에서는 ▲김 바벨 들기 ▲사이클 체험 등 이색적인 참여 활동과 함께 ▲곱창김의 두께와 결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퍼센트(%)가 "곱창김의 주산지가 진도임을 알게 됐다"라고 답했으며, 85퍼센트(%)는 "진도 곱창김의 맛이 우수하다"라고 평가해 높은 홍보 효과를 입증했다.

그 밖에도 "진도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곱창김과 일반 김의 차이를 느꼈다", "곱창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꾸며진 공간이다"라는 긍정적인 응답도 이어졌다.



진도군은 이번 '곱창김 팝업스토어'를 통해 진도 곱창김의 차별화된 품질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한편, 젊은 세대와 외국인을 중심으로 진도 김의 인지도를 빠르게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곱창김 팝업스

토어'를 계기로 진도 곱창김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며, "앞으로도 진도 김의 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영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8일 겨울철 주소득작물인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 재배를 위해 세심한 시설하우스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강풍·폭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 점검과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풍·대설·한파 예보 시에는 하우스 고

## 화순군,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 '선택 아닌 필수'

정 끈을 팽팽하게 조여 구조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외부 보온덮개와 차광막은 폭설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또한 습해 예방을 위해 배수로를 충분한 깊이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하우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정격

용량의 난방기를 사용하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즉시 교체·보수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하우스 내부에 소화기를 비치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류창수 소장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겨울철 시설하우스 관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며, "내년 2월까지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해 작물별 생육 관리와 에너지절감 기술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

## 함평군, '2025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기여 최우수상 수상

### 다년간 축제 경험... 우수 기관 선정 결실로 이어져

전남 함평군은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기여 기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대한민국 대표 농업·축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함평군은 지난 11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에서 열린 '2025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기여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하는 농업 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25개국에서 380여 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해 미래 농업기술과 각 지역의 특산품을 선보이는 등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함평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시군 홍보 부스 ▲함평 애호박 야의 홍보 부스 ▲남도 미니정원 조성 등 3개 분야에 참여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지역특화작목인 함평 애호박

을 활용한 요리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관람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또한 축제 명가로서 쌓아온 운영 경험과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시태그 이벤트와 캐릭터 '황박이' 포토존 등 이색적인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남도 미니정원은 함평의 상징인 나비와 국화, 아쿠아포닉스를 조화롭게 배치해 관람객들이 쉬어가며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호평을 받았다.

문정모 함평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25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기여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것은 농업인과 군민, 관계기관이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함평 애호박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카메라 뉴스



### 장흥군 관산읍,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줄이어

장흥군 관산읍에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관산읍 옥동마을 위생래 씨와 임하민 씨(천관산주유소 대표), 방촌마을 위생래 씨는 지난 1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총 350만 원을 관산읍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위생래 씨 100만 원, 임하민 씨 100만 원, 위생래 씨 150만 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위생래 씨는 매년 빼짐없이 백미 또는 성금을 기부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위생래 씨 또한 2023년부터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 무안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장의 1년을 마친다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 「2025년 성과공유 및 가족감사데이」를 열고, 청소년들의 1년간 성장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습·체험·동아리 활동 영상 상영과 작품 전시, 기타·우쿨렐레 공연이 진행됐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케이크 만들기 체험과 우수청소년 및 '나만의 특별상' 시상으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말했으며, 보호자들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청소년의 성장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이뤄진"다"며 "이번 행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 담양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담양군이 군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군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포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률과 저소득층 참여 확대 노력, 제공기관 관리 수준, 예산 집행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담양/이종욱 기자



##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